



#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 <상> 임풍금 (광주시 광산구)

글을 쓸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는 그 행복 앞에서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면 나의 30년 지난 세월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참담했다.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갖가지 불행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좌절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진실한 기도를 한다. 그 덕에 행운의 여신은 내가 가장 불행했을 때 미소를 머금은 손짓을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며, 행복한 순간만큼은 정말 진실한 기도를 잊고 산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둘째 녀석이 태어난지 겨우 세 해를 넘겼을 때 예기치 못한 불행, 아들의 한쪽 다리가 기어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어렸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양쪽 다리의 차이를 보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반근과 무지와 좌절이 전부였다. 치료하는 동안 밑바닥까지 거덜난 내 삶. 나는 뒷목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절실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곤 했다.

"부처님! 이렇게 간절히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내 자식놈의 다리만 완쾌하게 해 주신다면 제 목숨이 다한다 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의 양심과 또 부처님과의 약속이니 틀림없이 지켜주세요."

그 후 기적이란 기적을 경험했다. 의학적으 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다리였지만, 그 기도가 계속된 지 일년이 못돼 이상하게 치료에 진전이 왔다. 더 이상 바닥 날 것 없었던 처절하리만큼 힘들었던 내 삶에 찾아온 한줄기 빛. 그 후 내 양심에 맡긴 부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왔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생활습관이 내 몸에 배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의 고민을 털고 기뻐하기가 무섭게 또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순식간에 찾아온 뜨거운 불뿔이었고 그것은 예외없이 내

가슴을 태우고 말았다.

둘째 녀석이 정기 휴가를 나온 다음 날, 병원 응급실로부터 아들 녀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의 머릿속은 순간 텅 비어버렸다. 과거사가 떠올라 아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오토바이 사고는 중태 아니면 사망일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선 걱정이 태산이었다.

온갖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조여왔다. 지난날 다리가 마비된 채 고통당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군복무중인 아들이 또 이런 일을 당하니.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또 한번의 절실하고도 피를 말리는 간절한 기도로 부처님을 찾았다.

"부처님!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만큼 살았으니 목숨까지 내던져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던지겠습니다.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관세음 보살!"

응급실에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가위로 옷을 자르고 마취도 없이 아들의 몸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들의 손목엔 차고 있던 합장주가 피부 깊숙이 박혀 고 통스럽게 보였다. 아버지 이런일이, 아버지 이



그림 · 김흥인

## 내 처절한 기도에 아들은 기적처럼 치유되고...

런 큰 벌이 내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몸 기꺼히 내던지겠습니다. 혹독한 대가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간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의 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생명도 불어있었고 중태도 아니었다. 엄마의 당부를 듣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던 죄책감에 아들은 미안함을 가득 품은 눈을 팽뽕거리며 고통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둘째 녀석에게 일이 난 두 번째 기적은 그렇게 또 나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부처님께 그렇게 받은 자비로 인해 나의 불심은 더욱더 돈독해졌다.

저 멀리 티베트에서 오신 초월 스님은 가슴에 와닿는 법문을 해 주셨다. 모든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며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묻는 나에게 '참으로 귀한 질문'이라 하면서 "나를 행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를 철저히 버려야 하고 내 주위 모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과

연 나는 부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지난 2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 119차를 타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종합 병원으로 실려 가셨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고통, 좌절, 갈등. 이 세상에 있는 불행의 단어들에 모두 나에게 주어진 순간의 연속이었다. 어머니의 불행은 그 책임자인 곧 나의 불행이었다. 중풍은 적어도 사랑 아니면 불구자가 된다는 상식은 나에게도 있었다. (계속)

## 킬레이 수행일기 <상>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서 삼배만 하는 정도였던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외가 근처에 있는 사찰에서 부처님(아름) 생각해 보니 그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이었던 듯하다를 모시기 위해 좌복을 옮긴 적이 있다. 내가 다섯 살 남짓 되었을 때 사찰에서 아버지와 손잡고 찍은 사진이 있긴 하지만, 중3때가 부처님과의 첫 인연인 듯하다.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하숙과 자취로 지내는 동안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어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으리. 대학원에 진학하여 조계사청년회에서 수행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절하는 것 외에는 불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어머니가 독립 스님과의 인연으로 <법화경> 한권을 주시며 사경을 해보라고 권하셨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새벽마다 늘 테이프를 틀어놓아 기상음악으로 삼아 일어나곤 하여 쉽사리 외울 수



김종관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장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거룩한 스승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래의 사자가 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워 불교대학에 등록하여 포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니, 직장에서 같이 수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장불자회를 창립할 수 있었다. 2002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법우회를 신동구 초대회장님, 노영화 현 회장님, 장학민 부회장님 등과 함

## 어머니 권유로 '법화경' 사경 매진 교리 공부하며 직장에 불자회 창립

있었다. 본격적으로 불경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법화경> 사경 권유 이후의 일이다. <법화경>의 드라마틱한 전개와 '법화철용'의 내용은 '나의 법은 큰 바다와 같다'고 설교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꼭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경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적이 있었다. 자취방에서 저녁에 물을 끓인다고 가스렌지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4시가 되어 깼더니, 부엌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발갛게 달아 오른 것이었다. 부엌문을 열고 보니 주전자안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가스렌지 위에서 주전자가 거의 터지기 앞바 직전이 아닌가.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다 타버린 주전자를 보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다.

사경 수행을 통해 많은 경전을 접하면서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경전공부도 자주 듣게 되고, 청년회 법우들과 함께 목탁도 배웠다. 또 교리공부를 하기도 하고, <금강경>은 아내와 함께 무진장 스님께 3개월 정도 강의를 들으며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게 창립하여 매월 1회의 정기법회와 불·가을 사찰순례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수행이 포교요, 포교가 수행'임을 실천하고 있다.

초심자들이 대부분인 직장동료 불자회를 위해 불교방송을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진리의 청과로 할 수 있는 '불서'를 수시로 구입하여 읽으며 청년회와 사무실 도반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교리공부를 해 오고 있다. 책을 너무 많이 산다고 아내의 항상 내게 불만인 건 하지만.

한참 경전공부에 재미 들이면서 문득 나의 생각들을 담고,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향수해례, 비파리한 불교의례 등을 생각하면서 책자로 담기 시작한 게 '반야승리'란 이름의 책이다. 지혜가 가득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꿈꾸며 도반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 만든 게 다섯 번째 책까지 나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원이 하나 생겼다면, '자유의지'란 주제로 십년 내에 책을 한권 쓰는 것이다. 정말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계속)

###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④

### 구성 뼈대 설계가 잘돼야 감동적인 글 가능

#### ●구성은 왜 필요한가

일단 글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작문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이 필요하다. 주제를 설정하고 소재를 선정했으면 그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글의 내용을 엮어 짜야 한다는 것. 이 엮어 '짜기'를 구성이라고 한다.

구성은 골격에 비유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구성은 바로 글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2층 양옥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단층 기와집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그 의도가 주제라 가정한다면, 구성은 막연한 그 의도를 설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구성의 종류

구성에는 크게 연역적 구성과 귀납적 구성으로 나눈다. 주제를 앞세우고 그것을 풀이 나가는 경우는 연역적 구성이다. 귀납적 구성은 특수한 사례나 예시를 앞세우고 글의 끝부분에 주제를 제시(암시)하는 구성을 말한다. 연역적 구성은 주제를 서두에 제시하게 되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귀납적 구성은 끝부분에 가서야 주제를 암시하게 되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아우트라인의 작성

아우트라인의 작성을 위해 한 예를 들어 보겠다.

술은 부분적으로 효용이 있긴 하나 대체로 우리에게 해롭다는 취지의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술의 장점을 열거한다. 기분전환과 혈액순환 촉진 등.

그럼에도 술이 갖는 단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질병과의 연쇄반응, 인격파탄,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 결미에서 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한 편의 글이 무난하게 완성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린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터들어 거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효능"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류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장담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문의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입장

# 이토피·비염·천식

## 완치 성공

유아기의 경우 안면과 팔 다리의 바깥쪽에 습진을 보이며, 성인의 경우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된 습진을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모직, 합성섬유, 실크 등의 직물로 된 내복은 환자에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털로 만든 인형이나 털 목도리 등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건강진단 운동본부 | 지정의원 마고

### 진료

- 한의사 홍성인 원장님
- 한의사 오달석 원장님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마고한의원

### 문의

02)587-0001

※ 아토피·비염·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